

# 원오극근(圓悟克勤)의 공안관\*

츠치야 다이스케\*\*

- I. 머리말 - 간화선과 임제종 양기파의 공안관
  - 1. 공안의 평등화
  - 2. 공안에 의한 정신집중
  - 3. 공안의 단축
- II. 『벽암록』의 공안해석
  - 1. 상속야대난(相續也大難)
  - 2. 혈맥부단(血脈不斷)과 조동(曹洞)의 종풍
  - 3. 방(放)·수(收), 호환지기(互換之機)
- III. 맺음말

## ■ 한글요약

‘간화선’은 대혜종고에 의해 완성된 특수한 수행방법이다. 이 방법에 있어서 공안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 불가능한 해석을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러한 공안관의 맹아는 대혜의 스승이었던 원오극근의 사상 가운데 보이지만, 그는 한편으로 공안을 해석한 저술 『벽암록』을 남겼다.

\* 본고는 도쿄대학東京大学 동양문화연구소東洋文化研究所 「중국선어록의 연구」연구반에서의 발표에 기초함. 본 연구는 JSPS科研費17H00904의 지원을 받았음.

\*\* 土屋太祐, 니이गत타대학.

여기에는 ‘相續也大難’, ‘血脈不斷’이라는 말이 보인다. 이들은 “항상 입장을 전환해 가며, 도중에 끊기는 일 없이 문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벽암록』의 공안해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인 해석법은 공안에 의미를 두는 해석을 피하면서도, 공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슬아슬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화선, 원오극근, 『벽암록』, 상속야대난, 혈맥부단

## I. 머리말 - 간화선과 임제종 양기파의 공안관

송대의 간화선을 생각할 때 오가와 다케시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타당할 것이다.

‘공안선’이라는 호칭이 이제까지 광의와 협의의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되면서 논의의 혼란을 빚었는데 - ‘공안선’과 ‘간화선’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나 스스로는 공안을 이용하는 선(禪)을 널리 공안선이라는 이름으로 총칭하고, 그 하위구분으로서 문자선(文字禪)과 간화선(看話禪)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sup>1)</sup>

당말에서 송초에 걸쳐 선사들의 언행이 기록되게 되면서 그것이 ‘공안’으로 정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의 논고에서 발표하였다.<sup>2)</sup> 과거의 선사들의 언행에 대한 해석과 비평은 송대에 이르러 선문(禪門)에서의 주요한 실천의 하나로 되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공안선’은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한편 ‘간화선’은 임제종 양기파(楊岐派)

1) 小川隆(2011), 289.

2) 土屋太祐(2008), 『北宋禪宗思想及其淵源』, 第七章 참조.

에 속하는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에 의해 완성된 수행법으로서,<sup>3)</sup> 독특한 사상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화선의 공안에 대한 견해는 그 본질적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혜보각선사어록』 권26 「답부추밀(答富樞密) 제일서(第一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若要徑截理會,須得這一念子曝地一破,方了得生死,方名悟入。然切不可存心待破。若存心在破處,則永劫無有破時。但將妄想顛倒底心、思量分別底心、好生惡死底心、知見解會底心、欣靜厭鬧底心,一時按下。只就按下處看箇話頭。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此一字子乃是推許多惡知惡覺底器仗也。不得作有無會,不得作道理會,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不得向揚眉瞬目處採根,不得向語路上作活計,不得鬪在無事甲裏,不得向舉起處承當,不得向文字中引證。但向十二時中、四威儀內,時時提撕,時時舉覺。狗子還有佛性也無?云:“無。”不離日用,試如此做工夫看。月十日便自見得也。<sup>4)</sup>

여기에서 대혜는 유무(有無)라는 이해, 도리(道理)에 의한 이해 등의 공안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있는 해석들을 거절하고 있다. 공안은 “많은 악지(惡知)·악각(惡覺)을 깨뜨리는 무기”이고, 극도로 추상화된 절대적인 일구(一句)로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안을 ‘보는 [看]’ 것에 의해 ‘깨달음[悟]’을 추구하는 것이 간화선이다. 필자는 일찍이 대혜에 앞서서 이미 이와 같은 공안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음을 논하였다.<sup>5)</sup> 특히 대혜의 스승인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의 사상 중에는 대혜와 매우 비슷한 공안관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3) 石井修道(2017), 참조.

4) 『大正藏』47, 921下.

5) 土屋太祐(2008), 『北宋禪宗思想及其淵源』, 第七章 참조.

이하의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 1. 공안의 평등화

송나라 초기에는 공안을 그 의미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널리 행해졌다. 대표적으로 임제종 분양선소(汾陽善昭)의 18문(十八問), 운문종 천복승고(薦福承古)에 의한 3현(三玄), 임제종 부산법원(浮山法遠)에 의한 9대(九帶) 등이 알려져 있다.<sup>6)</sup> 그러나 후대의 선사, 특히 임제종 양기과의 선사들은 이와 달리 모든 공안은 유일한 진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면 『원오심요(圓悟心要)』 권상의 「시유서기(示裕書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臨濟金剛王寶劍、德山末後句、藥嶠一句子、秘魔杖、俱胝指、雪峰  
鞞球、禾山打鼓、趙州喫茶、楊岐栗蓬金剛圈,皆一致耳。契證得直下  
省力,一切佛祖言教無不通達。<sup>7)</sup>

여기에서 원오는 임제의 금강왕보검(金剛王寶劍) 이하의 몇 가지 공안들을 나열한 후 이들은 차이가 없으며, 이들로 깨달을 수 있다면 모두 불조(佛祖)의 말씀에 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2. 공안에 의한 정신집중

또한 양기과 선사들 중에는 공안을 정신집중의 수단으로 보는 생각도 나타나고 있다. 명나라 주굉(株宏)이 편집한 『선관책진(禪關策進)』에 수록되어 있는 오조법연(五祖法演)의 서간 「동산연선사송

6) 土屋太祐(2008), 『北宋禪宗思想及其淵源』, 204-212.

7) 『續藏經』120, 704上.

도행각(東山演禪師送徒行脚)』 8)에 이와 같은 경향이 보이는 외에 『원오심요(圓悟心要)』 권하의 「시인선인(示印禪人)」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初機晚學乍爾要參，無捫摸處。先德垂慈，令看古人公案，蓋設法繫住其狂思橫計，令沉識慮，到專一之地。驀然發明心非外得，向來公案乃敲門瓦子矣。……若以語言詮注語言，只益多知，無緣入得此個法門解脫境界。 9)

여기에서 공안은 초학자들의 망념(妄念)을 억제하고, 정신을 집중된 상태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래 갖춰져 있는 마음을 깨달으면 공안은 ‘문을 두드리는 기왓장[敲門瓦子]’, 즉 문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단지 지해(知解)를 늘릴 뿐이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3. 공안의 단축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공안을 보다 단축된 간결한 형태로 다루려는 태도도 주목된다. 대혜 간화선에서 가장 중시된 ‘조주무자(趙州無字)’의 공안이 본래는 보다 긴 형태였는데 오조법연에 의해 단축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원오에게도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전하고 있어, 비슷한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호야록(羅湖野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西蜀表自禪師，參演和尚於五祖。時圓悟分座攝納，五祖使自親灸焉。

8) 『大正藏』48, 1098下.

9) 『續藏經』120, 769上.

圓悟曰：“公久與老師法席，何須來探水？脫有未至，舉來品評可也。”自乃舉德山小參話。圓悟高笑，曰：“吾以不堪爲公師，觀公如是則有餘矣。”遂令再舉，至“今夜不答話”處，圓悟驀以手掩自口，曰：“止。只恁看得透，便見德山也。”自不勝其憤，趨出，以坐具搥地曰：“那裏有因緣只教人看一句！”於是朋儕競勉自從圓悟指示。未幾有省。<sup>10)</sup>

여기에서 원오는 서촉(西蜀)의 표자선사(表自禪師)에게 「덕산소참(德山小參)」의 화두를 해설하게 하였는데, 표자선사가 그 모두의 일구(一句)를 이야기하자마자 곧바로 그 입을 막고서 “그쳐라.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면 덕산을 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표자선사가 화를 냈다는 것으로 볼 때 원오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에 있어서도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임제종 양기파는 공안을 보다 탈의미적(脫意味的)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일관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원오는 “공안은 문을 두드리는 기왓장”이기 때 문에 들어가는 방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아가 “만일 대근기를 갖추면 반드시 고인(古人)의 언구공안(言句公案)을 볼 필요가 없다”<sup>11)</sup>고 말하고 있다. 원오는 공안의 탈의미화에 그치지 않고 공안 그 자체를 선(禪)의 중심적 과제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원오는 이와 같이 ‘간화선’의 선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진보적인 공안관을 갖지만 한편으로 ‘공안선’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다. 『설두송고(雪竇頌古)』를 제창한 『벽암록(碧巖錄)』은 그 대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먼저 원오에 의한 『설두송고』의 제창이 당시의 양기파 사이에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원오의 동문인 불감혜근(佛鑑慧勤)은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하여 원오에게 『설두송고』의 제창을 그만둘 것을 충고하였다.<sup>12)</sup> 『대혜

10) 『續藏經』142, 974下.

11) 『圓悟心要』卷下 「示蔣待制」, 『續藏經』120, 757下.

12) 『緇門警訓』 권8 「佛鑑愍和尚與佛果勤和尚書」, 『大正藏』48, 1085下

보설(大慧普說) 권2의 「방외도우청보설(方外道友請普說)」에 의하면 이러한 충고를 따라 “선사(=원오)가 마침내 그만두었다”고 한다.<sup>13)</sup> 대혜는 또한 학인들이 『벽암록』의 설에 얽매는 것을 걱정하여 그 판목을 파괴하였다고도 전한다.<sup>14)</sup> 애초에 『벽암록』 자체가 원오의 의지에 의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벽암록』은 원오의 제창을 들은 학인들의 기록이 원형이 된 것으로, 관무당(關無黨)의 「후서(後序)」에 의하면 학인들이 제창 기록을 모은지 20년 동안 원오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sup>15)</sup> 위에서 살펴본 공안을 탈의미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함께 생각하면, 『벽암록』이 양기파의 공안관을 대표하는 작품이었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벽암록』이 원오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로서, 여기에서 원오의 공안관을 읽어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상조류 속에서 『벽암록』의 공안해석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먼저 『벽암록』 전체를 보면, 공안에 대한 유의미(有意味)한 해석을 극력 회피하려고 하는 자세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당시 행해지고 있던 속류의 해석을 열거하고서, 그것들을 하나씩 부정해 가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벽암록』도 또한 공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부정적이었고, 위에서 살펴본 사상조류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벽암록』이 공안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공안에 대한 독특하고 흥미로운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 지금 『벽암록』에 나타나는 공안관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

-1086上

13) 柳田聖山. 椎名宏雄共編(1999), 209.

14) 『禪林法訓』 권4, 『大正藏』48, 1036中-下. 이상의 경위에 대해서는 또한 今津洪嶽, 「碧巖錄」鈴木大拙의 監修 『禪の書』, 210-214.

15) 『大正藏』48, 224中.

지만 이 글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공안해석을 제시하여 『벽암록』의 공안관과 그 시대 배경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II. 『벽암록』의 공안해석

『벽암록』에는 ‘끊임없이 입장을 전환해가면서 막힘없이 문답을 전개하는 것’을 평가하는 태도가 자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같은 공안해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상속야대난(相續也大難)

『벽암록』 제4칙·송평창(頌評唱)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如今人有底問著,頭上一似衲僧氣概,輕輕拶著,便腰做段,股做截,七支八離,渾無些子相續處。所以古人道:“相續也大難。”<sup>16)</sup>

근래의 사람들 중에는, 물어보면 처음에는 선승의 기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추궁하면 갑자기 다리도 허리도 떨어져서 지리멸렬하게 되어 전혀 문답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무리들도 있다. 그래서 고인古人이 말하였다. “계속하여 잇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相續也大難]”고.

여기에서 고인(古人)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은 당대의 선승 동산양개(洞山良价, 807-869)이다. 이 말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

---

16) 『大正藏』48, 144下. 이하의 『碧巖錄』 인용은 널리 이용되고 있는 『大正藏』본을 저본으로 하면서, 그 구두와 해석 등에 대해서는 入矢義高의, 『碧巖錄』(上)-(下)를 참조한다.



錄』 권15의 동산장(洞山章), (p.300下) 등에 보이며, 또한 『조당집(祖堂集)』 권6의 동산장(p.301)에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문답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들에서 동산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현실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여 가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러나 『벽암록』에서는 이와 달리 문답을 이어가는 것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말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예를 들면 제20칙의 본칙평창(本則評唱)에 ‘龍牙麼麼道, 不妨盡善。古人道: “相續也大難。”他古人一言一句, 不亂施爲。前後相照, 有權有實, 有照有用, 賓主歷然, 互換縱橫.’<sup>17)</sup>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는 본칙에서 용아거둔(龍牙居遁)의 일구(一句)를 칭찬하면서 ‘계속하여 잇는 것이 어렵다[相續也大難]’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나아가 ‘고인의 일언일구(一言一句)는 결코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후가 조응하고, 방편과 진실, 관조와 작용이 있으며, 빈주(賓主)가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자유롭게 교대한다.’고 한다. 여기에 보이는 ‘빈주역연(賓主歷然), 호환종횡(互換縱橫)’ 역시 키워드로서 주의를 요한다.<sup>18)</sup>

이 밖에 제59칙의 본칙평창(本則評唱)에 “趙州隨聲拈起便答, 不須計較。古人謂之“相續也大難”<sup>19)</sup>라는 내용이 있는데, 문답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응답한 조주(趙州)의 숨씨가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일야본(一夜本)<sup>20)</sup>에는 「상속부단(相續不斷)」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문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17) 『大正藏』48, 161上.

18) 『臨濟錄』 「示衆」에 이른 바 「四賓主」의 이야기가 있고 『臨濟錄』, pp.105-106), 『碧巖錄』 第三八則. 頌評唱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책들에서는 주와賓에 우열을 상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이는 「賓主」와 어떠한 의미적 관련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19) 『大正藏』48, 192上.

20) 一夜本 『碧巖錄』에 대해서는 土屋太祐, 「『一夜碧巖』第一則記注」을 참조.

것을 칭찬하고 있다.

또한 『벽암록』 제75칙의 본칙평창에는 다음과 같은 문단이 보인다.

看他作家相見,始終賓主分明,斷而能續。其實也只是互換之機。他到這裏,亦不道有箇互換處。自是他古人絕情塵意想。彼此作家,亦不道有得有失。雖是一期間語言,兩個活鱗鱗地,都有血脈針線。<sup>21)</sup>

“이 달인(達人)들의 수작을 보라. 계속해서 ‘빈(賓)·주(主)’가 분명하며, 끊어졌는가 생각하면 또한 이어진다. 실제로 이것이 ‘교대하는 작용[互換之機]’인 것이다.”<sup>22)</sup> 또한 마지막에는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의 말이지만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생생하게 ‘끊임없는 연결[血脈針線]’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상속야대난(相續也大難)’이라는 구절 자체는 없지만 ‘단이능속(斷而能續)’이라고 하여 역시 잇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 밖에 빈주(賓主), 호환(互換), 혈맥(血脈), 침선(針線)과 같은 어구도 보이는데, 이들이 자주 동일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제75칙은 이 상속, 부단, 호환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다. 본칙은 오구(烏臼)와 승려가 반복하여 응수하는 비교적 긴 공안으로, 내용이 대단히 난해한데, 원오는 이 두 사람이 교묘하게 입장을 바꿔가면서 막힘없이 임기응변의 문답을 계속해 가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 2. 혈맥부단(血脈不斷)과 조동(曹洞)의 종풍

21) 『大正藏』48, 202下-203上.

22) 「互換之機」 또한 종종 사용되는 말이다. 法眼文益의 『宗門十規論』 「對答不觀時節兼無宗眼第四」에 「임제(臨濟)는 곧 호환기(互換機)를 한다」(『續藏經』110, 879上)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 무렵부터 임제종의 특징으로 인정되었던 것 같다.

위의 『벽암록』 제75칙의 본칙평창에는 ‘혈맥(血脈)’이라는 단어도 보인다. 이 밖에 『벽암록』 제9칙의 송평창(頌評唱)에는 “他既呈機來,趙州也不辜負他問頭,所以亦呈機答。……古人自是血脈不斷,所以道:“問在答處,答在問處。”<sup>23)</sup>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혈맥부단(血脈不斷)’은 본칙의 조주(趙州)의 답이 승려의 질문과 보조를 맞추면서 의미 관련도 잃고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벽암록』 제91칙의 본칙평창에는 “此皆是下語格式。古人見徹此事,各各雖不同,道得出來,百發百中,須有出身之路,句句不失血脈。”<sup>24)</sup>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도 알기 어렵지만, 본칙에 보이는 여러 명의 선사들의 하어가 본칙과의 적절한 관련을 잃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혈맥(血脈) 혹은 혈맥부단(血脈不斷)은 조산본적(曹山本寂, 840-901)의 말에 의거한다. 아래에도 언급될 향엄(香巖)과 승려의 문답에 관하여, 어느 승려가 ‘고목 속의 용음(龍吟)의 뜻을 물은데 대해 조산이 혈맥부단이라고 답하였다.<sup>25)</sup> 이 말은 송대가 되면 공안비평에 있어서 특수한 용어로 된 것 같다. 원오의 법사인 대혜종고(1089-1163)의 4권본 『대혜보설(大慧普說)』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한다. 권2의 「전승무동중도우보설(錢承務同衆道友請普說)」의 내용이다.

又見一老宿,共我商量洞山夏末示衆云:“初秋夏末,兄弟東去西去,直須

23) 『大正藏』48, 149下-150上.

24) 『大正藏』48, 216上.

25) 『景德伝灯録』卷17, 曹山章. 또한 이하의 「血脈不斷」에 관한 고찰을 포함한 내용은 土屋太祐, 『『一夜碧巖』第二則訳注』, 61-62 참조.

向萬里無寸草處去。”此話既出，一時下語，皆不契洞山意。有僧傳到石霜，霜云：“何不道出門便是草？”洞山聞得深喜之，云：“瀏陽有古佛出世。”老宿商量道：“此處綿密。”謂：“根蒂下事有事有理，又喚作無中唱出。洞山道：‘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是理上問。這裏若答他語不活，則死在一邊。所以石霜就事上答，云：‘出門便是草。’要得血脉不斷。”又引僧問香巖：“如何是道？”巖云：“枯木裏龍吟。”僧云：“學人不會。”巖云：“髑髏裏眼睛。”謂：“枯木却有龍吟，髑髏却有眼睛，亦是血脉不斷。”<sup>26)</sup>

대혜가 아직 행각하고 있을 때, 어느 노숙(老宿)을 뵈고 동산(洞山)과 석상(石霜)의 인연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이 노숙은 그 문답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근본의 자리에 리(理)가 있고, 사(事)가 있다. 동산이 말한 ‘만 리의 작은 풀도 없는 곳을 향해 가라[向萬里無寸草處去]’는 리의 차원에서의 질문이다. 만약 이에 대한 회답이 경직된 것이라면, 즉 마찬가지로 리의 차원에서의 회답이라면, 의미가 한쪽으로 고정되어 ‘죽어[死]’버린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석상은 사(事)의 차원에서 ‘문을 나가면 곧바로 풀[出門便是草]’이라고 답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혈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4권본 『대혜보설』의 다른 곳에도 이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권3의 「지통거사칭보설(智通居士講普說)」에서는 “萬里無寸草處去是無中唱, 出門便是草 是有中和, 貴得血脉不斷.”<sup>27)</sup>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지는 ‘고목용음(枯木龍吟)’의 공안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고목(枯木), 촉루(髑髏)라는 죽어버린 것에 용음(龍吟), 안정(眼睛)과 같은 살아있는 작용이 있다. 이와 같이 한쪽의 의미에 고집하지 않는 것이 「혈맥부단」이라고 한다.

26) 『禪學典籍叢刊』 卷4, 201下.

27) 『禪學典籍叢刊』 卷4, 255上.

또한 금·원대의 조동종 승려 만송행수(萬松行秀, 1166-1246)의 『청익록(請益錄)』 제14칙의 평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一日示衆云：“裂開也在我，捏聚也在我。”諸方道：“把定，真金失色；放行，瓦礫生光。謂之有擒有縱，能殺能活。”洞上宗風，斥為話作兩橛，決針斷線。不見道：恁麼，相續也大難。直須當存而正泯，在卷而亦舒。鈎鎖連環，謂之血脉不斷。<sup>28)</sup>

여기에서는 「혈맥부단」 과 함께 ‘상속야대난(相續也大難)’도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본칙에 나오는 목주(睦州)의 일구(一句)인 ‘나누는 것도 나에게 있고, 모으는 것도 나에게 있다[裂開也在我 捏聚也在我]’를 해석하는 부분인데, 제방의 존속들은 이것을 ‘과정(把定)’과 ‘방행(放行)’에 의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과정(把定)은 과주(把住)라고도 하는데, 종종 방행(放行)과 대구로 사용된다. 과주, 과정은 궁극적·절대적인 입장에 서서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방행은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 개별적인 것이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인정함을 나타낸다.<sup>29)</sup> 즉, 목주(睦州)의 일구를 리와 사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행수는 이와 같은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만일 조동의 종풍에서 본다면 이것은 ‘말을 둘로 나누어, 이어짐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는가. 그와 같이 한다면 상속(相續)하는 것도 크게 어렵다고. 바로 존속(存續)하는 한가운데에서 민멸(泯滅)하고, 권(卷), (理, 모으는 입장)의 한가운데에서 서(舒), (事, 풀어놓는 입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양자가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혈맥부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행수에 의하면 제방의 해석에서는

28) 『統藏經』117, 826上.

29) 土屋太祐(2017), 29 참조.

‘리’는 ‘리’의 국면으로, ‘사’는 ‘사’의 국면으로 분열되어 있어, 양자의 자재한 교환과 유기적인 연속성이 끊어져 있다. 리와 사의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그 사이를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조동의 종풍이다. 이것이 바로 회호(回互)의 사상에 통하는 생각이 아닐까 한다.<sup>30)</sup>

또한 이들보다 조금 빠른, 원오와 거의 같은 시기의 사례로는 혜홍(慧洪)의 『임간록(林間錄)』 권하의 기사를 들 수 있다.

……故又作《轉位》。轉位則所謂異類中行。異類全偏,却須歸正,使血脉不斷,故又作《一色過後》。<sup>31)</sup>

이것은 동안상찰(同安常察)의 『십현담(十玄談)』의 내용을 혜홍이 해석한 부분이다. 『십현담』은 10수의 계송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그 중에서 아홉 번째의 전위(轉位)는 이류중행(異類中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류(異類)는 모두 편위(偏位), (사事的 측면)에 속하므로 다음은 정위(正位), (리理의 측면)로 돌아가, 혈맥부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다음의 ‘일색과후(一色過後)’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야대난(相續也大難)’과 ‘혈맥부단(血脉不斷)’은 모두 조동종 조사의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중에서 혈맥부단은 늦어도 혜홍 무렵까지는 리와 사의 입장을 끊임없이 전환하면서 계속하여 문답이나 계송을 전개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대혜보설』에서 대혜가 그 노숙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그 견해가 조동종의 종지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청익록』의 내용으로 생각건대 이

30) 土屋太祐(2008), 61-66 참조.

31) 『統藏經』, 148, 646上.

러한 말들이 조동종의 종풍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서 계승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임간록』의 자료에서도 ‘편정(偏正)’이라는 조동종지와 관련되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원오는 이러한 말을 스스로의 공안해석에 원용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자료들에 의거하는 한 원오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들을 사용하여, 문답이 서로 의미관련을 잃지 않으면서 면면히 이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오는 그때까지의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보다 추상도가 높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방(放)·수(收) 호환지기(互換之機)

방(放)·수(收)도 또한 공안해석에 있어서 같은 태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아래의 예에서는 호환(互換)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위에서 검토한 용어군에 속한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벽암록』 제68칙은 이 ‘방·수’를 주요한 테마로 하는 칙인데, 본칙은 다음과 같다.

舉。仰山問三聖：“汝名什麼？”聖云：“惠寂。”仰山云：“惠寂是我。”聖云：“我名惠然。”仰山呵呵大笑。

이에 대하여 송평창(頌評唱)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雙收雙放若為宗，放行互為賓主。仰山云：“汝名什麼？”聖云：“我名惠寂”，是雙收(「収」는 張本에 「放」，福本과 一夜本에 따라 수정함)。仰山云：“惠寂是我。”聖云：“我名惠然”，是雙放(「放」은 張本에 「収」，福本과 一夜本에 따라 수정함)。其實是互換之機，收則大家收，放則大家放。雪竇一時頌盡了也。他意道：若不放收，若不互換，爾是爾，我

是我。都來只四箇字，因甚却於裏頭出沒卷舒？古人道：爾若立，我便坐；爾若坐，我便立。若也同坐同立，二俱瞎漢。此是雙收雙放，可以為宗要。32)

쌍수(雙收)하고 쌍방(雙放)함이 어떻게 종(宗)인가[雙收雙放若為宗]는 설두의 송(頌)의 일구(一句)이다. 여기에서는 양산이 삼성(三聖)에게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삼성이 ‘혜적(惠寂), (=양산의 이름)’이라고 답한 것이 두 사람이 함께 수(収)한 장면이고, 그 후에 양산이 ‘혜적은 나의 이름이다’고 말하고, 삼성이 「나의 이름은 혜연(惠然)이라고 답한 것이 두 사람이 함께 방(放)한 장면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호환지기(互換之機)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설두의 송의 의도를 해석하여, 만일 방(放)·수(収)하지 않고, 호환하지 않으면,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한다. 또한 수산성념(首山省念)의 말33)을 인용하여, ‘네가 설 때 나는 앉고, 네가 앉을 때 나는 선다. 만일 함께 서거나 함께 앉으면, 두 사람 모두 애꾸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두 사람이 보조를 맞추어 방과 수의 입장을 전환시키는 것에 비로소 문답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 ‘방·수’라는 말은 위에 인용한 『벽암록』 제75칙의 본칙평창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방·수가 공안해석의 용어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과주(把住) / 방행(放行)과는 달리 오로지 문답에서 선사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알기 어려운데, 방(放)은 상대에게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는 것, 수(収)는 상대의 입장을 빼앗아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두중현의 어록인 『명각선사어록(明覺禪師語錄)』 권3의 「염고(拈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32) 『大正藏』48, 197下-198中.

33) 『古尊宿語要』卷2 「汝州首山念和尚語錄」, 63下-64上.



있는 것이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舉。臨濟示衆云：“我於先師處三度喫六十棒，如蒿枝子拂相似。如今思一頓棒喫。誰為下手？”

僧出衆云：“某甲下手。”濟拈棒與僧，僧擬接，便打。師云：“臨濟放處較危，收來太速。”<sup>34)</sup>

여기에서 설두는 임제가 승려에게 몽둥이를 넘겨준 것을 ‘방’, 때린 것을 ‘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과 상대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방·수’의 본래 의미라고 생각된다.

### III. 맺음말

지금까지 『벽암록』의 공안해석의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벽암록』에는 끊임없이 입장을 바꾸면서 막힘없이 문답을 전개하는 것을 평가하는 태도가 보인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벽암록』 제75칙에는 이 테마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송평창에서 원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看他兩箇，機鋒互換，絲來線去，打成一片，始終賓主分明。有時主却作賓，有時賓却作主。雪竇也讚歎不及，所以道：“互換之機，教人且子細看。”

此二人機鋒，千古萬古，更無有窮盡。

이 부분에서는 오구(烏臼)와 승려가 계속 입장을 바꾸면서 막힘없이 문답을 계속해 가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만일 원오의 입

34) 『大正藏』47, 686上.

장에 선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의 문답에서는 어떠한 관점도 상대적인 가치밖에 갖지 못한다. 만일 하나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그 모순점을 지적받아 문답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항상 자기의 입장을 고정하지 않고 자재하게 관점을 전환할 수 있을 때야말로 망정(妄情)을 끊은 경지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끝없이 문답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해석의 관점에서는 공안에서 각각의 어구를 그것의 고유한 사상내용에 기초하여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문답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 자체를 평가한다. 이것은 상대적인 평가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빈주(賓主)나 방수(放收) 등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을 취하여 행해진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벽암록』의 난해함의 원인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서두에서 살펴본 당시의 사상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제까지 검토한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해석법은 공안의 유의미(有意味)한 해석을 피하면서, 그럼에도 공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슬아슬한 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공안을 탈의미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원오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도 대혜의 간화선에 견주면 아직 유의미(有意味)한 이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러한 이유에서 『벽암록』은 동문의 불감혜근, 그리고 대혜에게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벽암록』은 「공안선」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극점을 보이는 동시에 아직 간화선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전류

- 『景德伝灯録』, 禪文化研究所, 1990.
- 『古尊宿語要』, 柳田聖山 主編. 『禅学叢書』 之一, 『無著校寫古尊宿語要』, 中文出版社, 1973.
- 『祖堂集』, 中華書局, 2007.
- 『大慧普說』 (柳田聖山·椎名宏雄 編 『禅学典籍叢刊』 第四卷, 臨川書店, 2000).
- 『碧巖録不二鈔』, 禪文化研究所, 1993.
- 『臨濟録』, 岩波文庫, 1989.

### 2. 단행본

- 石井修道(2017), 「大慧宗杲の看話禅の成立について」 『駒澤大学禅研究所 紀要』 第29号.
- 今津洪嶽(1952), 「碧巖録」 鈴木大拙·宇井伯寿·井上哲次郎監修 『禅の書』, 春陽堂書店
- 入矢義高·溝口雄三·末木文美士·伊藤文生(1992-1996.), 『碧巖録』 (上)-(下), 岩波文庫,
- 小川隆(2011), 『語録の思想史』, 岩波書店.
- 土屋太祐(2008), 『北宋禅宗思想及其渊源』, 四川出版集团巴蜀書社.
- 柳田聖山·椎名宏雄共編(1999), 『禅學典籍叢刊』, 臨川書店, 第四卷下.

3. 논문

土屋太祐(2015), 「一夜碧巖」第一則訳注 『東洋文化研究所紀要』 第167冊.

土屋太祐(2016), 「『一夜碧巖』第二則訳注」 『東洋文化研究所紀要』 第169冊.

土屋太祐(2017), 「『一夜碧巖』第三則訳注」 『東洋文化研究所紀要』 第171冊.

土屋太祐(2019), 「血脈不斷・相統也大難—宋代禪宗における公案解釈の一視点」, 『印度学仏教学研究』 第67卷, 第2号.

■ Abstract

**Gongan Chan(公案禪) of Yuan-wu-chin(圓悟克勤)**

Taisuke Tsuchiya

Kanhua chan 看話禪 is a particular training method of Chan Buddhism that was brought to completion by Dahui Zonggao 大慧宗杲. In this method, gong'an are regarded as meaningless and uninterpretable phrases, and the archetype of this view of gong'an is already apparent in the works of his master, Yuanwu Keqin 圓悟克勤. But on the other hand, Yuanwu left a work called Biyanlu 碧巖錄 that interprets gong'an. In this book, we can find the phrases “it is difficult to continue” (相續也大難) and “the blood lineage is not interrupted” (血脈不斷). These phrases show that, when interpreting gong'an, the Biyanlu had a tendency to show an appreciation of monks changing their positions constantly and developing questions and answers without interruption. This abstract interpretation was considered to be a marginally acceptable way of talking about gong'an while avoiding meaningful interpretation.

Keywords ● Kan Hua Chan, Yuanwu Keqin, Biyanlu, “it is difficult to continue”, “the blood-lineage is not interrupted”